염불…아미타불의 극락세계로 가는 길



안락집
도작 지음
보운 옮김
혜안 펴냄
2만원

〈안락집〉은 중국 정토교학의 대표적 경전 중의 하나로, 불법을 수행하는 대중들이 아미타불의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을 돕기 위한 방편으로 염불수행 방법을 강조한 저작이다. 한국에서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번역본이 없어서 확실한 내용을 알 수 없었다. 국내 최초로 번역된 이 책은 중앙승가대학교를 비롯해 여러 승가대학에서 정토종 연구의 주교재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런 까닭으로 내용의 정확한 의미 파악에 어려움이 많았다. 정본의 필요성을 절감한 역자 보운 스님(신륵사 거사림회 지도법사)이 한글로 번역하여 간행했다.

수많은 수행법 중에서 염불은 승가가 재가자와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통로요, 부처님의 법을 빠르게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또 염불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불교의 교학이 어렵다는 두려움을 벗어버릴 수 있는 부분도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수행의 깊이를 증장시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되는 수행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보편적이고 접근이 쉬운 염불 수행법을 일반대중에게 보급하기 위한 대안으로 중국에서는 정토종이 널리 보급되어 왔고, 긴 역사를 통하여 동아시아 불교에 많은 영향을 끼쳐왔다.



동화사 아미타후불탱

정토종의 이른바 소의경전인 〈안락집〉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빈번하게 왕조가 교체되면서 사회적 혼란과 민생의 파탄을 일으킨 중국의 남북조시대의 시대적 상황에서 시작된다. 혼돈의 남북조시대를 마감하고 통일을 이루어 사회적 안정을 찾는 수나라는 다시 고구려와의 3차에 걸친 전쟁과 대운과 건설 등으로 인한 국력 소모로 617년에 멸망하고, 이어서 618년에 당이 건국된다. 저자인 도작 스님이 소년기 때인 574년 북주 황제 무제는 불교와 도교를 탄압하기 시작하여 영토 안에 있는 모든 불상과 경전을 파괴하고, 수많은 승려들을 환속시켰다.

도작 스님은 정치의 혼란 속에서 계속되는 전쟁과

국내 최초로 번역된 〈안락집〉

염불수행 강조한 정토교학 대표 경전

기근, 그리고 폐불 등의 사건을 겪으면서 당시가 말법시대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하게 되었고, 자신이 살아온 시대를 〈대방등대집경〉의 제4의 오백년에 해당한다고 믿었다. 그는 이러한 말법시대에 상응하는 가르침은 정토문이 가장 적합한 교리이며, 이것으로 대중을 구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가 〈안락집〉을 저술한 것은 이러한 정치적 격동과 불교 내부의 새로운 문화적 변혁을 받아들여 정토교학의 체계적인 이론 정립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정토문(淨土門)'이란 아미타불의 힘에 의해 극락정토에 왕생하여 깨달음을 얻는 법을 말하는데, 무한한 시간과 공간성을 중심으로 대륙적 기질의 중국문화가 발전시킨 아주 중요하고 혁신적인 불교 수행방법의 하나이다.

〈안락집〉은 〈대정신수대장경〉 제47에 실려 있다. 서분(序分), 정종분(正宗分), 유통분(流通分)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에서는 찬술 목적을 밝히고, 정종분 12대문 중 각 일문(一門)마다 전체 내용을 설명하는 '개요', 핵심 내용을 설명하는 '개별 해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유통분에서는 찬집과 유통의 공덕이 널리 중생에게 베풀어져 극락에 왕생하며 함께 불도를 이루길 발원하며 맺고 있다.

정종분은 전제척으로 중심 내용이 12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대문에서 제3대문까지는 상권, 제4대문에서 마지막 12대문까지는 하권으로 되어 있다. 개요에서는 12대문의 내용을 간략히 서술하고, 개별 해석에서는 구체적으로 경, 율, 론을 인용하여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대중은 누구나 현실생활의 벽에 막히어 몸과 마음이 힘들고, 이로 인해 생긴 번뇌로 괴롭다. 이렇듯 힘든 삶 속에서 듣는 진리의 가르침인 염불소리는 대중의 마음에 안식을 주기에 충분할 것이다. 바로 그런 까닭에 부처님의 진리를 음성으로 옮기는 독경소리야말로 우리들에게 염불을 찾게 하는 커다란 이유일 것이다. 이러한 독경과 염불의 이론을 정립한 것이 정토교학이며, 그 논리의 중심에 〈안락집〉이 있는 것이다.

역자는 "〈안락집〉의 찬술은 중국 정토교학의 혁신적 발전을 이루게 했고, 철학적으로 난해하여 접근하기 힘들었던 일반 대중들에게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행법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당시 지식층들의 전유물이었던 불교가 대중을 향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도 되었다."고 〈안락집〉의 가치와 의미를 말했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당신의 삶은 어떠합니까?"

세상의 님에게 보내는 스님의 편지

영흥 스님 지음 | 연월 펴냄 | 1만6천원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당신의 삶은 어떠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끼니를 챙길 겨를도 없이 출근을 합니다. 현대인의 삶은 모두 공장에서 빵을 찍어내듯, 쳇바퀴 굴러가듯,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바쁜 삶 5분만 내려놓고 산승이 보내는 편지 한 편 읽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산승이 보내는 따뜻한 글이다.

어머님, 오늘은 당신이 그립습니다.

예전엔 당신보다 부처님이 먼저였습니다.

당신보다
부처님을 더욱 우러러 받들며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오늘은 부처님보다 당신이 먼저입니다.

부처님보다
당신을 더욱 우러러 받들며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어머님,
어머님이란 이름 앞에서는
항상 설레는 아기가 됩니다.

어머님,
이승에서나 저승에서나 어느 모습으로도
여여하게 지금은 빙그레 웃으시겠네요.

부처가 곧 당신의 아들이라고요.

어머님,
이제 저도 사바든 극락이든
스스로 항상 해탈낙입니다.

이제는 어머님도 마음 놓으시고
흥대로 항상 행복을 누리소서.

늘 오늘에 영흥, 향 사르고 큰 절 3배 올립니다.

불제자로 살던 스님은 어느 날, 어머님이 생각났다. 출가자이기 이전에 인간이고 아들이었던 것이다. 아들은 어제까지는 어머니보다 부처님이 먼저였지만 오늘부터는 어머니가 먼저라고, 부처님보다 어머니를 더욱 우러러 받들며 존경하고, 사랑하겠다고 고백한다.

저자 영흥 스님은 출가자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삶을 통해 쌓은 단상들을 세상을 향해 던진다. 60여 편의 글은 스님만의 독특한 은유와 비유가 빚어낸 선시들로 자신을 돌아볼 틈조차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위로가 될 따뜻한 메시지를 전한다. 우리나라는 국민 20명 중 1명은 우울증을 경험하고,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8년 동안 1위를 지키고 있다. 물질적 풍요 속에서 겪고 있는 정신적 빈곤을 걱정한 스님의 힐링 법문이다.

박재완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3/27 ~ 4/2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만덕, 만현	현지궁현지사
2	삶이 값진 것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월호	마음의숲
3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4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쌤앤파커스
5	닦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용화
6	절대 혼자 살지 마라 (스님의 쓴 소리)	혜철	마젠타
7	그대는 그대가 가야 할 길을 알고 있는가	선묵혜자	아침단청
8	풋과일이 떫은맛을 내는 것은 천리한 아름다움이다	성담	셀프컬쳐리서치
9	진광불휘	유철주	담앤북스
10	대원만 수행 요결	직메 최기왕뽀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www.unjusa.com
운주사 (02)3672-7181

이야기의 힘…사색으로 이끌다

이야기꽃 2

박용성 지음 | 살림터 펴냄1만3천원



한 젊은이가 수사학을 배우기 위해 소크라테스를 찾아갔다. 수사학이란 말을 정연하게 다듬어 하는 방법을 공부하는 학문인데, 아테네의 젊은이들에게는 필수 학문이었다. 그 젊은이는 소크라테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너무 장황하게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젊은이에게 두 배의 수업료를 요구했다. "선생님, 왜 저에게만 많은 수업료를 요구하십니까?"

"왜냐하면, 나는 자네에게 두 가지 학문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이지. 그 하나는 하고 싶은 말을 어떻게 자제하느냐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어떻게 말을 다듬어 하느냐 하는 것이지.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더욱 어렵지. 자네는 그 첫 번째 것을 더 공부해야 하네."

인간과 삶을 둘러싼 숱한 이야기들이 있다. 그 이야기들은 존재와 현실과 이상에 대한 끊임없는 의문과 성찰을, 비판과 대안을 제기해왔으며, 시공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교훈을 주었다. 전작 〈이야기꽃〉을 통해 '이야기의 힘'을 보여준 저자는 "이야기는 무엇보다도 재미있어야 합니다. 이야기는 그 이야기 속의 삶을 더불어 나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말로 그치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들려주는 것이라고도 합니다."며 책 〈이야기꽃 2〉를 펴냈다.

책에 담긴 이야기들은 재미있게 읽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 민담과 설화, 성서와 불경, 탈무드와 이솝우화, 그리스 로마 신화 등에서 가려 뽑은 것으로, 친숙하면서도 깊은 사색으로 이끌어준다.

"고대 이집트의 왕릉에서 밀알이 한 줌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을 땅에 심고 물을 주었더니, 놀랍게도 싹이 텄습니다. 5천 년 만에. 이렇듯 생명은 침묵으로 지켜주고 그 삭을 틔웁니다. 하지만 메마른 말에 생명이 실리면 그 말소리의 가벼움에 생명조차 허공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말을 아끼는 일이 생명을 아끼는 일입니다."

120편의 이야기들은 방학을 뺀 10달로 구성되었는데, 달마다 열두 편씩 나누어 수개하면서, 각 글마다 관련된 이야기와 함께 지은이의 생각('생각하기')을 덧붙이고 있다. 짤막하면서도 감동과 교훈을 주는 이야기들 속에서 지은이는 독자에게 진지하고 깊은 생각과 바른 실천을 통해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 많은 것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고 강조한다.

3월은 교육을 생각하는 달, 가르침과 배움에 대한 이야기들이다. 4월은 친구를 생각하는 달, 친구에 대한 이야기들이다. 5월은 부모를 생각하는 달, 부모 마음과 내리사랑을 생각하는 이야기들이다. 6월은 사회를 생각하는 달, 우리 사회의 슬픈 모습을 반성하게 만드는 이야기들이다. 7월은 욕망을 생각하는 달, "나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고 묻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이야기들이다. 9월은 자아를 생각하는 달, 스스로 자신을 구해야만 하는 인간의 자아에 대한 이야기들이다. 10월은 지혜를 생각하는 달, 지혜롭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다. 11월은 과학을 생각하는 달, 과학의 발전, 과학적 인식에 관해 귀 기울이는 이야기들이다. 12월은 죽음을 생각하는 달, 우리네 삶의 자리와 죽음의 자리를 생각해보는 이야기들이다.

2월은 시작을 생각하는 달,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존재인 우리들의 희망에 대한 이야기들이다.

박재완 기자